

신하의 선물 많이 받으세요



밀알&세계

1

2023 | VOL. 263

MILAL & WORLD

##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꿈꾸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삿 2:10)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밀알’과 여러분의 삶과 사역 위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세계 도처에서 ‘밀알’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년 지구촌을 위협했던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있는 ‘밀알’ 안에서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주었고, 그로 인해 불어 닥친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난 혹독했던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다사다난 했던 코로나바이러스의 도전을 넉넉히 뚫고 나와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는 연말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밀알이 창립된 지 43주년이 되었고, 밀알운동의 창립하였던 1세대들이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세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필드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였던 밀알운동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사역자들과 더불어 단원들이 변질되지 않고 한마음 한 뜻으로 사역을 진심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어린 세대가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로 칭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나왔음을 폭로하였지만(삿2:10), 우리 밀알은 3대 목표인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정신이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에게 전달되어 다음 세대 사역자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밀알운동을 감당하고 있음을 20개국 100여 곳의 밀알 지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기간 중에서도 과테말라밀알,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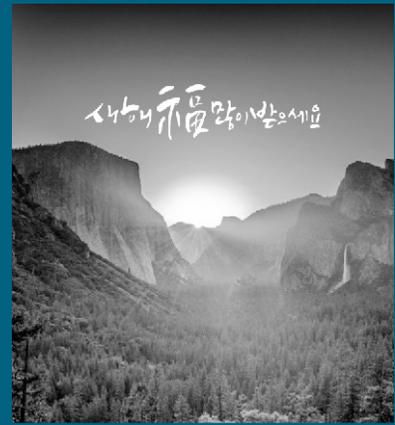
스톤밀알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주의 총단장의 이취임식을 은혜 중에 거행하며,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짐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 3년간 움짱달썩할 수 없었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밀알의 사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열악한 사역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주시는 국내외 단장님들과 간사님들, 밀알 사역자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 기관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몇 년씩 혹은 수십 년씩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기도하시고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들의 덕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무슨 말씀으로 감사하단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밀알 사역으로 이끄셨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장애인을 섬기는 일에 지금까지 자기희생의 세월을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한 알의 밀알 되어서 가장 작은 자 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밀알이 됩시다. 🌱

글 | 이재서 목사  
(세계밀알연합 총재, 총신대 총장)





### 표지사진: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역시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밀알가족이 되길 바란다. (사진: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출)

### 차례

- 02. 칼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꿈꾸며
- 04. 새해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08. 아름다운 섬길  
2022 밀알대통령봉사상 수여식
- 10. 밴쿠버밀알러 엠티  
밀알의 목적과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
- 12. 2022년 성탄 이벤트  
따스함이 가득했던 크리스마스 파티
- 14. 새해의 다짐  
2023년! 전도, 봉사, 계몽이 곧 선교입니다!
- 15. 에벤에셀 하나님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

##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밴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263호 | 2023년 1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최재휴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밴쿠버: 604-339-4417  
텍사스: 682-561-9826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밀알

### 최재후 총단장

희망찬 2023년이 밝았습니다.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외모가 더욱 윤택하고 지혜가 총명해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지구촌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밀알가족 역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 새해 복



## 뉴욕밀알

### 김자송 단장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께 감사드릴 것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이 건강하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또 주께서 우리 밀알에 새로운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단하게 장애인 친구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올 2023년에도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필라델피아밀알

### 이재철 단장

이스라엘의 혼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진정 “고난은 위장된 축복”임을 재발견합니다. 지난 한 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큰 성과를 거둔다)’이란 고사성어처럼 계묘년 토끼처럼 지혜롭고 성실하게 밀알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 뉴저지밀알

### 강원호 단장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밀알의 모든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적 하나님나라의 실현은 장애인들이 기뻐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때 증거될 것입니다. 밀알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임을 확신하며 더욱 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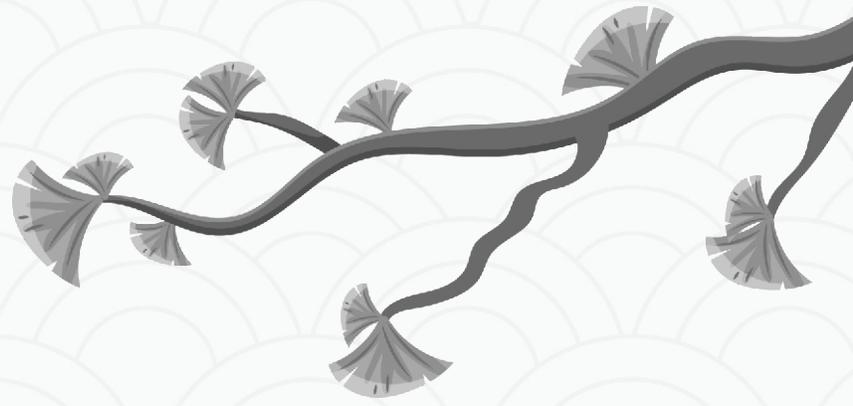
## 캐나다밀알

### 김신기 단장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실상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 고난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는 밀알가족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 만물이 반은세음



## 보스턴밀알

### 반봉현 연락소장

보스턴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밀알을 세우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모든 밀알가족들에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 리치몬드밀알

### 서바을 지소장

인류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세계 모든 밀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대한민국과 세계밀알연합, 밀알가족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 워싱턴밀알

### 정택정 단장

전 세계 흠어져 계시는 밀알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미주 단장님들은 이과수에서 모두 만납시다. 한국 단장님들도 뵙고 싶습니다.



## 마이애미밀알

### 박민선 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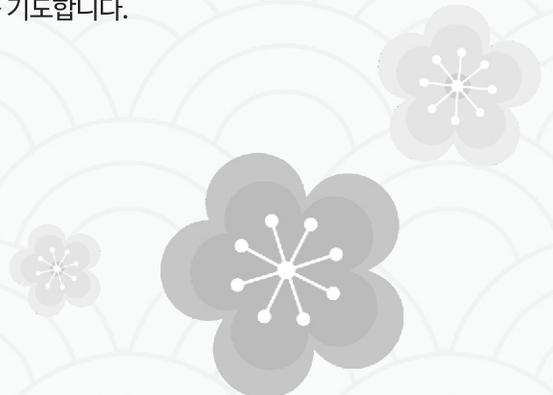
2022년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자연재해와 크고 작은 인재, 그리고 나라 간 전쟁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든 밀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또한 우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되는 2023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캐롤라이나밀알

### 이승민 지소장

지난 2022년은 샬롯밀알에서 캐롤라이나밀알로 나아가는 한 해였으며, 장애인들과 더불어 지역선교를 감당하는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축복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불어 밀알의 모든 가족들과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 새해복

## 시카고밀알

### 남성우 단장

늘 연말이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 갔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 년 동안 밀알선교단은 묵묵히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 왔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밀알의 사역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2023년은 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남가주밀알

### 이종희 단장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밀알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함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은혜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님 따라서 한 알의 밀알로 사역하고, 그렇게 인도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한 것 이상의 열매로 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시애틀밀알

### 장영준 단장

새로운 소망을 기대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예전과는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팬데믹의 끝자락과 뉴노멀의 시작에서 우리 모든 밀알 식구들은 시대가 바뀌든 상관없이 역시 우리 주님이 유일하신 소망임을 간증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되신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귀한 새해 2023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 북가주밀알

### 김정기 단장

2023년 새해의 새로운 바람은 다시 희망을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욕망을 뛰어넘어 나로 이웃을 사랑케 해달라는 희망이며,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내가 민감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마다의 순간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 밀알가족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담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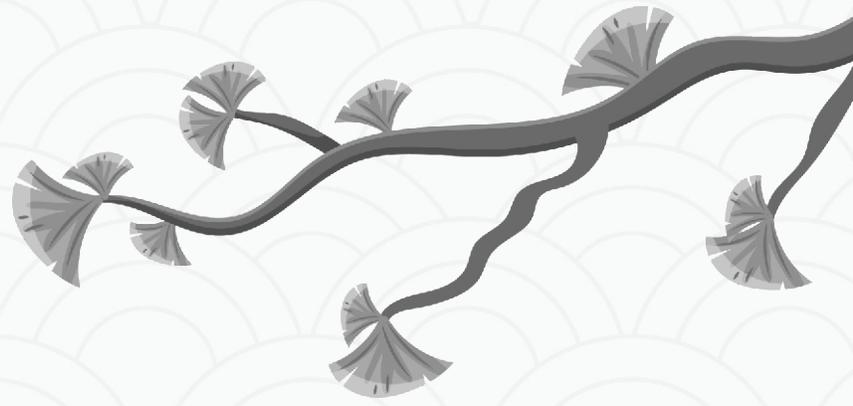
## 밴쿠버밀알

### 이상현 단장

새해 인사말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난해도 감사한 마음과 기도와 손길 덕에 어려움을 지나왔고, 올해도 감사한 분들 덕에 밀알 사역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평강 가운데 밀알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만물이 반은세음



## 텍사스밀알

### 채경수 단장

전세계 밀알가족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는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깊은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 파라과이밀알

### 강미숙 단장

전 세계 밀알식구들에게 파라과이에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도는 더욱 크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며 더 많은 밀알의 씨를 뿌리여 많은 축복의 열매를 수확하는 밀알 식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Prospero A o Nuevo!



## 브라질밀알

### 최은성 단장

지난 한 해 동안도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2023년에는 브라질의 장애 친구들이 새로운 교실에서 현장수업 프로그램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르헨티나밀알

### 이주희 단장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더 큰 일들을 볼 수 있는지 발끝을 울리며 바라보게 됩니다. 2023년을 출발하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아르헨티나밀알이 주님의 사랑을 더 나누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밀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FELIZ A O NUEVO! DIOS LOS BENDIGA A TODOS.



## 과테말라밀알

### 이정로 지소장

세상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이 기쁨과 소망이 흘러 이웃과 온 세계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넘치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셨던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는 모두가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진 일상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영육 간에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 아름다운 섬김

## 2022 밀알대통령봉사상 수여식

지난 11월19일(토) 오후, 새영교회(정종섭 담임목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남가주밀알 사랑의교실 6개 브랜치에서 장애인 참가자들을 온 마음을 다해 섬겨준 30여명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통령 봉사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ovid-19 기간동안 온

라인과 대면 수업을 통해 장애인 참가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수업을 진행해준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이들의 헌신을 격려해주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부모님, 그리고 각 사

랑의교실 담당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봉사자들의 노력과 섬김을 치하하고 격려하며 대통령 봉사상 수상을 축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새영교회 담임목사님이신 정종섭 목사의 은혜의 말씀과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님의 축하 말씀으로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봉사상은 영주권과 시민권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이지만, 유학생 등 다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사랑의교실에서 헌신해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의원이신 Sharon Quirk-Silver의원이 수여하는 봉사상도 시상하였습니다. Sharon Quirk-Silver 의원의 박동우 보좌관께서 직접 오셔서 CA State Assembly 봉사상을 수여하시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올해는 금상 8명, 은상 11명, 동상 15명 등 총 34명의 학생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봉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기존의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6시간동안 진행되었으나, Covid-19 팬데믹 이후 1-3시간으로 수업시간이 짧게 줄어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대통령 봉사상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엔 수상자 인원이 많이 줄었고, 이들 중에서도 동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봉사시간에 상관없이 본인의

귀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장애인 참가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한 우리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노력이 사랑의교실 너머로 널리널리 퍼지길 바라며,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글 | 조수빈 (남가주밀알, 사랑의교실 디렉터)

밀알봉사를 시작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반복적으로 듣고 배우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친구들에게 집중하기’이다. 그러다 보면, 매주 꽤 많은 시간을 밀알에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같이 봉사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봉사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또 밀알봉사의 의미와 함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이 밀알친구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밴쿠버밀알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 ■ 밴쿠버밀알러 엠티

# 밀알의 목적과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

봉사자(밀알러) 엠티를 갖는다. 지난해 하반기 엠티는 11월19일에 있었다. 이번 엠티는 당일치기의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몰랐던 색다른 모습을 찾으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다.

밀알러 타임에는 ‘하나님께서서는 밀알, 장애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밀알에 임하는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밀알러들은 영상 편집,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타 연주, 연기를 활용한 발표를 통해 “하나님은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신다”, “밀알에서 더욱 성장하는 사랑으로 가득한 봉사자가 되고 싶다” 등 밀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여 이 시간을 더욱 유익하고 풍성하게 채웠다. 이 활동을 통해 박하린 봉사자는 “이번 엠티를 통해서 밀알러로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명확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또한 밀알러 각자가 생각하는 밀알과 밀알에서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목표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뜻깊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레크리에이션팀이 준비한 탐정게임 시간에는 열정 넘치는 참여와 팀워크가 보기 좋았다. 바비큐와 스시로 채운 식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 특히 스시는 각자가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 먹으며 콘테스트를 병행하여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다.

밴쿠버밀알은 봉사자의 아이디어와 에너지, 각자의 헌신이 어울리며 빛어내는 시너지, 그리고 기도와 물질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과 후원교회의 정



성이 밀알친구들 및 학부모님들과 함께 만나 하나님의 사랑의 세상을 경험하는 현장이다. 이 밀알봉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봉사이며,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밀알봉사의 길을 밝혀주고 동력이 된다. 이번 엠티에서 단장 이상현 목사님은 두 개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 첫 번째 말씀은 “When You Know What God Has Done” (눅 1:46-49)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The Work of God, the Work of Milal” (행 1:8)이었다. 리더야 밀알러는 이번 설교말씀을 통해 “We have the power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and that raised Jesus to be seated in Heaven which is the Holy Spirit”이라는 배움을 가졌다고 말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밀알러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사랑의교실에 찾아온다. 평소에는 자신보다 장애인 친구들을 더 챙기고 신경쓰기에 봉사자들끼리 알아

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사용되게 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더 느끼는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었다. 아울러 밀알의 리더로서 밀알러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

글 | 김주혜 (밴쿠버밀알, 1기기자단)



가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협력이 중요하다. 밀알러 엠티는 봉사자 간의 단합을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해 사랑의교실에서 더 좋은 결실을 얻게 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준다. 엠티를 진행한 사랑의교실 디렉터 에스더 밀알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





## 따스함이 가득했던 크리스마스 파티

텍사스밀알선교단 사랑의교실이 지난 12월10일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실시하고, 2022년도 마지막 사랑의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3주 겨울 방학을 보내고 1월에 다시 오픈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외부에서 Art & Craft Team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서인지, 팀 멤버들과 잘 어울려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겼죠. 산타 포토존, 팝콘존, 솜사탕존, 풍선존과 버블존으로 나누어서 우리만의 즐거움을 나누었어요.

산타 복장을 하신 봉사자는 오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전해주고, 모든 아이들이 산타와의 인생 컷을 찍었어요. 후원교회인 제자침례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후원해주셔서, 아이들 각자가 원하는 선물을 나누었어요. 부모님들이 봉사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주셔서 서로 선물을 나누는 즐겁고 기쁜 한 때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 달라스의 비 오는 겨울날이었어요. 1월에 다시 봐요. 할렐루야!!

글 | 텍사스밀알 홍보부



# 2023년! 전도, 봉사, 계몽이 곧 선교입니다!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향한 계획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간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몸소 실천하며 선교의 영향력을 역사에 기록하여 왔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Missio'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보내다' 라는 행위의 동기가 되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Mission)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말할 때, 우리는 선교행위를 '총체적인 선교'라는 말로 부릅니다.

선교가 신학의 영역에 오른 역사적 근거를 추적해 보면, 1544년 예수회 '이그나시우스 로올라'가 사용하였을 때로 거슬러 오릅니다. 그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마을마다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선교란 말이 신학영역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선교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첫 의미를 '사도적 직무'의 좁은 뜻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행위'에 대한 포괄적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19세기에 와서 선교는 세밀화 되었습니다. '삼자운동'으로 자전, 자치, 자급 등의 원칙들이 정립되었습니다. 프린스턴대학교처럼 '이교도들을 위한 선교사의 양성소'라는 목적의 교육 훈련기관들도 활성화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와서 세계화 물결은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인본주의가 지닌 인간우월사상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는 휴머니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며, 영적 세계의 존재인식과 더불어 하

나님을 향한 선교적 사명이 다시 한번 고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교회의 두 분파인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도 합의와 발전이 나타났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선교확장과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통한 선교의 신학적 논의가 합의되어서 '로잔언약'같은 공동의 정의가 발현되기도 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처럼 문화와 교회 등에 선교적 사명을 결합하는 시도가 새 시대의 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선교역사의 발전이 다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총체적 선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밀알선교단은 1979년에 창립되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꿈꾸며, 선교적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밀알선교단은 전도와 봉사, 그리고 계몽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시대마다 도전과제로 주어진 다양한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와 사회에 대변해 오고 있습니다. 전도와 봉사, 그리고 계몽이란 우리 밀알의 목표는 '선교'라는 말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알선교단'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나라 공동체입니다.

2023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밀알과 더불어 장애인이 앞서가는 교회공동체로 하나님의 선교가 활발하게 증거되는 복된 한 해를 꿈꿉니다. 밀알이 썩어져서 밀밭을 이루는 교회공동체를 소망합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맨해튼음악대에서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는 바이올린 전공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의 유학 생활동안 삶의 여정 가운데에 늘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너무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이 희미해진 저를 뉴욕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했었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만큼 크나큰 선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밀알로부터 간증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저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넣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를 자랑하기 보다는 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의 간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금 이 뉴욕 땅에서 뜨겁게 회복하는 계기가 된 그때의 감격을 다시 새기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진짜 첫사랑의 기억과, 이 곳에서 다시 저에게 재창조의 체험으로 저를 변화시키신 기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이 아니라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은 거의 절에서 사시다시피 하셨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절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절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곳에 있는 어린이합창단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는 되었지만,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기만 했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아 그 후로 저는 절과 아무런 인연 없이 지냈고 무신론자에 가까운 생활을 거의 5년 넘게 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냥 불교 신앙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어렵듯하게 듭니다.

아무튼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오기 전까지는 종교 생활 자체에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욕심 많은 학생으로, 공부든 바이올린이든 지기 싫어서 그저 열심히만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만 좋다면 제가 누군가를 짓밟고 무시해도 되는 것인 줄 알며 굉장히 이기적

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만큼 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이라는 철없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던 중에,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제가 다니고 있었던 특수학교에서 음악을 좋아하고 잘 하는 학생들을 몇명 뽑아 목동 제자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함께 팀을 만들어 한 순서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없이 그냥 연주 순서를 채운다는 생각으로 팀을 만들어 크리스마스 전날 성탄전야제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늘 성탄절만 되면 학교 내에 어린이합창단에서 아무 생각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기에 그 날도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간다는 생각으로 목동 제자교회로 향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때 음악회가 1 2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저희는 2부 순서였기에 1부에서 찬양 사역자분들이 찬양하시는 것을 관람했습니다. 그 때 너무 유명한 찬양 사역자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 중 한 분인 '강찬' 목사님께서 '섬김'이라는 찬양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고 찬양

을 들으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라는 가사를 들으면서는 거의 오열을 하다시피 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이때까지 나만 잘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게 살았던 저의 모습이 계속 되었다가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며 엄청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누군가를 핍박하고 미워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잘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을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사랑해볼게요.'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동 제자 교회로 저를 인도하심으로 그 찬양으로 하여금 저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 성령체험 이후 저희 팀 순서였는데, 서로 실력있는 뮤지션들끼리 뭉치다 보니, 의견 충돌도 많았고 참 많이 부딪쳤었는데 그 날은 성령 체험을 해서였는지 불평의 마음 없이 한 무대에서 서로 한 분이신 주님을 높인다는 기쁜 마음이 되어 찬양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의 첫 경험이었고 찬양이 주는 엄청난 힘을 느꼈기에 그 후로 찬양을 많이 즐겨 듣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형성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중학교 3학년 새 학기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 때는 사순절이 막 시작되었던 때였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믿음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 반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때 선생님은 성경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지만 과거의 죄악 가운데에 얽매어 있는 저의 손을 잡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선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보혈로, 너의 과거의 죄는 씻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너는 이미 새것이 되었으니 과거로부터 이제는 억눌려 있지 않아도 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게 된 순간 너는 새 피조물이 되었어." 그 말씀에 감동과 위로를 받아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저란 사람, 하나님께 별 받아도 썼던 죄인이었던 저를 위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저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셨고, 물과 피를 쏟게 하셨으며, 그 후로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이전 것의 죄악들이 벗어지고 새 것이 되게 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에 너무도 큰 감격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더 늦기 전에 선생님을 통해 듣게 하시고 그것에 감격에 겨워 다시 눈물의 회개를 드리게 하심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자라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 때부터 11년 동안 그냥 이렇다 할 터닝포인트가 없이 그냥 물 흐르듯 잠잠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그리스도인 다운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상태로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좋

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 주셔서 뉴욕으로의 유학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너무도 급속도로 인도하셔서 도대체 이 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궁금해하면서 뉴욕 맨해튼에서의 생활을 적응해 나가고 있었지요. 2020년 9월에 입학 예정이었지만 펜데믹으로 인해 한학기를 미뤘고, 2021년 1월부터 학기를 시작하였는데, 아직 잠잠해지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첫 학기를 들었고, 작년 9월부터 뉴욕에 왔는데, 처음에는 여러가지 다른 문화들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부딪쳐야 할 것 투성이라 수시로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라는 원망 섞인 질문이 발작처럼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뉴욕인들의 영어가 너무 빨라서 한동안 적응을 해야 했고, 대학생 때와는 비교도 안되는 산더미같은 과제에 시달려 거의 6개월은 울면서 학교를 다녔던 듯 합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3월에 UPS(Urban Prayer Station, 국내와 열방을 위해 한국인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서 특송 요청이 와서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사순절이 시작된 지 둘째 날이었고, 그 곳에서 특송 이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 11년동안 정말 수없이 들었지만 중 3 때 이후 하나님과 관계형성은 계속 되어있었지만 복음은 그냥 머리로는 알았지만 감격은 말라 갔었는데, 11년 만에 그 곳에서 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중 3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복음을 다시 11년 만에 중 3 교실에서와 같이 복음이 제

마음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되찾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고 나니 마치 잃어버렸던 연인을 다시 찾은 듯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복음의 감격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기를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중 3때도 복음을 듣고 나서 2~3개월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쁜 소식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 흘렀었는데, 점점 분주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말라갔었고 하나님을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 죄악속에 빠져 말로만 거룩한 척 하는 바리새인이었었는데, 다시 복음이 제 삶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다시 찾은 그 첫사랑의 회복을 잃고 싶지 않아 항상 복음이 제 삶에 스며들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삶의 분주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잘 하지 않던 기도 생활을 목숨을 걸고 사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 이후 세월이 지나 언제부터인가 죽어버린 제 영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영이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생각과 함께 은혜가 떠나간,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버린 삶이 얼마나 저를 사악하게 하는지를 크게 깨달은 이상 다시는 은혜안에서의 삶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도의 능력들에 대해 알도록 해주셨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기도 중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글 | 김지선 (뉴욕밀알, 맨해튼음대 석사과정)

\*다음 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 ■ 남가주

### 2023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2023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월16일(월) 오전 11시에 갈보리선 교교회(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호 기사에 게재됩니다.

### LA 화요일예배 (12월)

- 6일은 신경섭 목사님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영주 사모님이, 특송은 최미영 권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또 12월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 친교는 신경섭 목사님의 부친이신 신동선 집사님이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3일은 조영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김미향 전도사님이, 특송은 강문구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 역시 박이래 목사님이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0일은 LA밀알 가족들을 위한 송년모임으로 모여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OC 목요일예배 (12월)

- 8일은 이재형 목사님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준수 목사님이, 특송은 최미영 권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해피러너스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5일은 늘푸른교회 박선호 담임목사님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은철 목사님이, 특송은 신지혁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22일은 OC밀알 가족들을 위한 송년모임으로 모여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랑의교실 (12월)

- 3일: Orange County 사랑의교실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Lauren Kim 선생님 환영합니다!
- 10일: East Los Angeles 사랑의교실이 공원에서 오랜만에 야외수업을 가졌습니다. 산책도 하고 여러가지 액티비티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17일: 모든 사랑의교실 브랜치가 연말파티를 가졌습니다. 부모님들도 모시고 게임, 쿠키 등을 함께하며, 따뜻하고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사랑의교실이 약 5주간 겨울방학으로 수업이 없습니다. 2023년 1월 28일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 남가주밀알 1월 기도제목

- 2023년 한 해 동안도 남가주밀알의 모든 사

역을 형통하게 이끌어주시고,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 밀알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LA화요모임, OC목요일모임이 계속 안전하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역시 온라인과 대면모임으로 진행 중인데,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밀알 가족들의 삶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은혜가운데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 스태프들과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 가운데 2023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새로 선발된 2023년 밀알 장애인 장학생들이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 북가주

### 북가주밀알 이모저모

- 12월은 온라인 화요일예배로 모였습니다. 6일은 김정기 단장님께서 ‘하나님나라와 밀알’이라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13일은 2022년 마지막 예배로 함께 성탄감사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승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새해 북가주밀알 화요일예배는 2월7일(화)에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시작합니다.
- 사랑의교실도 2월4일(토)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산호세 사랑의교실은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에서 모입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은 산호세 새소망교회에서 각각 모일 예정입니다.

### 2023년 사랑의교실 봉사자 모집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에서는 청소년 봉사자(8학년~12학년)들이 장애인과 친구가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신체적, 정서적, 영적 성장을 이루며 감사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 좋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밀알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산호세 사랑의교실에서는 청년, 장년 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에 참여해 헌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밀알사무실 혹은 이승헌 총무님(510-789-7099)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북가주밀알 기도제목

- 2023년 새해의 밀알모임과 예배에 복을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밀알가족들과 봉사자분들이 하늘의 큰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독감과 코비드의 위험 가운데 우리 모든 밀알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 제레미킴 형제가 그룹홈 생활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삶에 잘 적응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지역교회에 장애인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장애인 가족들이 교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밀알 목사님들과 간사님들이 성령충만케 하시고, 서로 함께 돕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2023년 새해를 계획하는 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나눔이 이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올해 사랑의캠프는 오프라인으로 다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다시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장애인과 가족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친한 이웃이 되어서 어려움을 나누어 가벼워지고, 기쁨을 나누어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밀알선교단의 사역이 북가주에 잘 썩어진 밀알처럼 나타나서, 모든 북가주 교회와 커뮤니티에 우리 밀알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 시애틀

### 시애틀 사랑의교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간증이 되는 귀한 한 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밀알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는 성탄축하예배와 2022년 마지막 사랑의교실을 진행했습니다. 각 가정에 귀한 선물을 밀알에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사랑의교실은 1월에 방학을 하고 2월 첫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납니다. 방학동안에도 건강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사랑의교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울러 여전히 밀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밀알의 모든 스태프들과 가정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 웨더럴웨이 사랑의교실

웨더럴웨이 사랑의교실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3일(토) 성탄 축하예배와 밀알방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웨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웨더럴웨이 사랑의교실도 1월까지 방학을 하고 2월 첫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납니다. 방학동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이종열 전도사님과 송윤석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봉사자가 속히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이종열 전도사 253-228-7734)

## 시애틀밀알 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검도, 음악수업, 크래프트, 산책, 마트 장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6일 조신실 집사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0일 성탄 축하예배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SMA의 친구들과 봉사자들에게 귀한 모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검도와 음악과 미술 선생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더 풍성한 SMA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타코마밀알 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의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1일 눈이 오고, 도로가 얼어 있어서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12월15일에 성탄 축하모임을 하고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동안 건강하고 은혜로운 밀알의 모든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송 간사님의 손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TMA에 체육과 미술 선생님, 그리고 남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속히 구해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 감사합니다

- 밀알에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웨더럴웨이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신 웨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사랑의교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시애틀형제교회, 온누리교회, 웨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알립니다

- 밀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www.seattlemilal.com](http://www.seattlemilal.com)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현장예배로 진행됩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주일 오후 1시)에서는 사랑부(장애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온누리교회에 장애인 주일학교(사랑부)가 있습니다.
- 오래된 뱀엘장로교회에 장애인 주일학교(사랑부)가 있습니다.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치료, 검도, 요가,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치료, 요가,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타코마중앙장로교회)

##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프로그램 재정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心和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냇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S.M.A와 T.M.A(성인장애인)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15명)

## 기도해 주세요

- 2023년 밀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밀알의 모든 스텝들과 사역들을 통해 장애인 전도/봉사/계몽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 밀알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eattle Milal Academy를 위하여
-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Tacoma Milal Academy를 위하여
- 시애틀, 웨더럴웨이, 타코마의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 ■ 밴쿠버

### 밀알 사랑의교실 토요일 Happy Together

2023년 새해에도 사랑의교실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밀알러 모두에게, 그리고 친구들의 가정들과 밀알러의 가정들, 밀알사역을 후원하고 기도해주시는 밴쿠버밀알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2월, 한해 동안의 사랑의교실을 감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비드 감염자 없이 모두 건강한 가운데 사랑의교실이 진행된 점이 감사했습니다. 토요일 사랑의교실은 찬양과 예배, 오늘의 말씀을 심화학습하는 디보션 타임, 식사와 체조, 다양한 내용의 대소그룹 활동 등을 통하여 서로를 만나고, 밀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의교실에 식사 봉사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26일 갈릴리교회(담임목사 김광식), 12월3일 밴쿠버밀알자모회, 12월10일 한교회(담임목사 한기현)

### 윈터포털 댄스파티

지난 12월10일에는 <윈터포털 댄스파티>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밴쿠버밀알이 매년 연말에 밀알친구들을 위하여 여는 윈터포털은 친구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행사입니다. 이번에도 한교회(담임목사 한기현)가 이 행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밴쿠버밀알 (Milaler) 활동

밴쿠버밀알 봉사자 Alumni가 <밀알러>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준비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비팀은 공식 출범행사 '밀알러의밤'을 좀 뒤로 미루고, 준비의 시간을 좀더 갖기로 방향설정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월10일 <밀알러 크리스마스파티>를 열었습니다. 현재 봉사하고 있는 밀알러를 중심으로 OB밀알러들이 참여하여 친교와 생각들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한교회(담임목사 한기현)에 감사를 드립니다. 밴쿠버밀알 봉사자 그룹은 이제 <밀알러>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고 결속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이 잘 이루어지고 많은 선후배 밀알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18일에는 밴쿠버성산교회(담임목사 정운달)의 초청으로 주일집회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말씀을 전하고, 밴쿠버밀알의 수어찬양팀 '날개'가 수어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밀알사역을 나누었고, 참석한 교우들이 함께 밀알사역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밴쿠버성산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 밴쿠버밀알 기자단 활동

밴쿠버밀알 1기 기자단에 이어 2기 기자단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분기별 '밴쿠버밀알뉴스'를 유튜브를 통하여 나누고, '밀알뉴스레터' 발간과 '밀알&세계 원고' 기고 등을 담당합니다.

# 지단별 소식

밀알의 즐겁고 행복한 소식과 모습들이 더 잘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밴쿠버밀알 홈페이지 [vancouvermilal.com](http://vancouvermilal.com)

밴쿠버밀알 홈페이지에서 밀알러, 기자단이 전하는 소식 등을 보실 수 있고, 굿즈프로젝트(투게더)에 대한 안내 및 주문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밴쿠버밀알의 여러 정보들과 활동사진, 영상 등도 같이 보실 수 있고, 밀알 봉사지원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밀알 봉사하실 분 함께 해주세요

밀알 봉사를 함께 하실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밴쿠버밀알은 매년 1월과 9월에 정기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엽니다. 밴쿠버밀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www.vancouvermilal.com](http://www.vancouvermilal.com) > Milal > Prospective Milal > Click to apply at Milal

##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밀알 후원을 e-transfer로 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e.vanmilal@gmail.com](mailto:finance.vanmilal@gmail.com)).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The Prayer' & 'The Bridge'

<The Prayer> 밀알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에 헌신하실 분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The Bridge> 월 \$10 정기후원하실 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604-339-4417, 단장 이상현 목사).

##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 2023년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 밴쿠버밀알 Goods Project: <투게더>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잘 돕고, 밴쿠버밀알사역에 인적, 물질 힘을 더하는 결과를 얻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좋은 봉사자들이 많이 지원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밴쿠버밀알봉사자 <밀알러>가 잘 조직되어 밴쿠버(밀알러)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 밴쿠버밀알을 후원하는 분들을 축복하소서. 후원자 개발과 펀드레이징 사역을 인도하여 주소서. <협력간사모임>과 <대외협력팀>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참하여 밴쿠버밀알이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열어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과 성령으로 섬기는 밀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밀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밀알,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밀알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교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 단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정이 성령충만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그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소서.

## 텍사스

### 토요 사랑의교실 (11월)

- 5일: 오늘 예배에서는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성경공부에서는 오늘 배운 말씀을 다시 되새겼으며, 그 밖에 art & craft를 통해 소근육기술을 높이는 훈련을 하였고, 스포츠활동, 음악활동을 하였습니다
- 12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Bible Study, Language Activity, Art & Craft, Sports, Music therapy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봉사자이신 예일호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 19일: 오늘은 추수감사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자고 다짐하는 시간이었고, art & craft 시간에는 감사 바구니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밖에 언어활동, Sports, music therapy 등의 발달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우리 교회 지역사회 섬김부에서 풍성한 점심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로 섬겨 주실 교회나 개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267-815-6211 임현정 전도사)

### 밀알 뮤직아카데미

텍사스밀알에서는 악기를 배우고 싶은 장애인들을 모집합니다. 악기를 배우면서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 모집부분: 첼로, 바이올린, 플룻, 피아노
- 레슨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레슨비용: 무료 (전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악기는 구비하시거나 렌트하시면 됩니다.
- 장소: 한우리교회 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 신청방법: 다음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 <https://form.jotform.com/222903824523150>
- 문의: 267 815 6211, [txmilal@gmail.com](mailto:txmilal@gmail.com)

### 밀알 청년 성경공부

매주 토요일 5 20분부터 장애 청년들과 요한복음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12월4일에 부흥교회에서 실시하는 홀리스 사역에 동참하고 왔습니다. 성경공부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채경수 단장에게 문의하세요. (267-467-5971)

###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밀알 청년오케스트라에서 16세 이상, 악기를 배우고 있거나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장애인과 일반인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권진아(469-630-1029) 밀알오케스트라 디렉터에게 연락주세요.

### 악기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악기(현악, 관악 등)를 기부해주세요. (문의: 채경수 단장)

###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기도모임 때마다 말씀을 나누며 말씀의 의미를 밀알사역에 적용하는 기도를 하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 내용 중 응답되었던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장애인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뚜렷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문의 267-467-5971 채경수 단장) /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152562

### 목요 성인 예배모임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뇌졸중 장애인과 함께 뇌신경학적 음악치료를 통한 재활 훈련을 실시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목요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체장애인은 문의해주세요

### 4차 '밀알 사랑나누기' 실시

주변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을 섬기기 위한 '사랑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수정교회의 후원으로 네번째로 실시하는 사랑나누기는 기존의 장애 가정 외에 필요한 장애 가정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하세요. (267-467-5971)

### 기도합니다

- 텍사스밀알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 봉사자를 보내주소서.
- 사역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사랑의교실에 참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 목요 성인 장애인 예배를 위해 목요 음악치료를 진행할 때, 복음이 필요한 자를 보내주소서
- 밀알 오케스트라의 단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오케스트라 되게 하소서
- 2023년 1월에 전문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합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을 보내주시어, 밀알 사역이 다양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 2023년 사랑의교실 점심을 섬길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 지역 교회 중 장애인 선교 사역에 동역할 교회와 교회 리더십을 허락하소서
- 새로운 사역을 위한 협력자를 보내주시고, 사역을 진행함에 순조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 재정보고 2022년 11월

### Southern California

#### ■ INCOME: \$22,605.78

**Individuals: \$3,388.00** \$30 Hyoung Il Seo, Youn G Ro / \$50 Hye Ran Lee, Moon K Lee, anonymous / \$100 Unsil Shin, Kyung Sook Kim, Chun C. Gamble, Ho Myoung Lee, Kyung O Lim, Eun Sook Lim, Ro O. Kim, Hyun Pack / \$150 Helena Chung / \$200 Jaemin Youk / \$300 anonymous, Douglas Yeo / \$428 Ji Hyun Ryu / \$500 Inju Uyehara, Hong Royong Kim

**Churches & Businesses: \$11,186.53**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86.53 Amazon Smile / \$100 Gamsa Community Church, Inland Olive P.C / \$200 Bank Card Services, Bethel Korean Church,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Living water Mission Church, Vrim Church, LA Mission Church of Hope / \$250 Ace Tech Auto Center, Inc / \$300 The First P.C of OC /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Shalom Church of Southern CA,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Full Gospel LA Church, Sarang Community Church, H.D. Grace Church, Lord's Community Church, Acts Global Church, Dae Hue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New Life Evangelical Mission, The Love Korean Church / \$500 NGL Transportation, Good Community Church of Torrance, Living Stone Korean Methodist Church / \$600 Irury LLC, LA Hanmi Church / \$900 World Mission Church / \$1,000 God's Righteousness Church, Law office of Steven C Kim & Associates

**Specials & designated income: \$8,031.25** <\$3,050 Camp Fundraising><\$200 Class AGAPE-Hyung Je Presbyterian Church> <\$2,691.25 Texas Milal> <\$450 Rent> <\$500 Kyung Won Kang-Sharing love> <\$400 Thursday Worship Fellowship-Yoo Kyung Song> <\$740 Thanksgiving Potluck Donation>

#### ■ EXPENSE: \$43,726.33

**Payroll Expenses: \$15,456.80** \$11,200 Salaries & Wages / \$856.80 Payroll tax / \$1,500 Employee benefit / \$1,900 Housing support

**Public Support: \$2,872.56** \$500 Palm Mission Church / \$500 Visitation Support / \$316.99 Congrat. & Condol\$100 NJ Milal Rev. Wonho Kang's son marriage, \$100 Hee Won Yang's daughter marriage, \$100 Alejandro Shin marriage, \$16.99 Thursday November birthday cake: / \$1,555.57 Sharing Love\$678.35 Thursday Worship dinner, \$533.66 gift pens, \$343.56 Thursday Thanksgiving Potluck:

**Admin & Management: \$8,932.77** \$3,431.73 Rent / \$444.17 Equipment rent / \$128.29 Telephone & internet / \$400.91 Electric / \$230.47 Office Supplies / \$300 Legal & Professional / \$385.97 Office Meals / \$978.60 Alliances Fee for America Milal / \$13.55 Postage & Shipping / \$2,619.08 Insurance\$2,491.08 Automobile, \$128 Umbrella:

**Media Mission: \$2,091.58** \$1,372 Magazine Publication / \$645.78 Magazine Shipping & Handling / \$73.80 Vancouver Shipping & Handling

**Class AGAPE: \$7,004.98** \$4,950 Teachers' Compensation / \$1,036.23 Events & Meetings / \$152.43 Learning Materials /

\$780.36 Class Meals & Snacks / \$85.96 Class Supplies

Camp Fundraising: \$6,275.82 \$4,800 People's Choice Beef Jerky / \$648 Cham Ki Reum / \$200 Karisalt, Inc Fine Salts / \$260.80 coffee fragrance pouch / \$367.02 box for coffee fragrance

**Auto Expenses: \$1,091.82** \$397.45 Ford / \$470.29 Sienna / \$211.26 Gas / \$12.82 Interest

**Previous Carry over Balance: \$387.64**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0,732.91**

#### ■ 남가주밀알 장학 재정보고

**INCOME: \$10,100.00** <Churches & Businesses \$800: \$200 Irvine Onnuri Church / \$300 Phila Milal / \$300 Atlanta Milal> <Milal Night Brochure \$5,100: \$200 Peter Shin M.D Inc,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n / \$300 Claudia Supply Co. / \$400 JY Auto / \$1,000 Korean Church of OC / \$1,500 Andrea Bijoux, Seoul Medical Group Inc.> <Milal Night Ticket Sale \$4,200>

**EXPENSE: \$10,641.39** <Scholarship \$4,600: \$900 Collegians / \$2,800 Reserved Ministers Supports / \$900 Volunteers Aids> <Milal Night Expenses \$6,041.39: \$650 Public Relations / \$5,000 Guests / \$391.39 Praise Team>

**Previous Carry over Balance: \$194,660.49**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94,119.10**

### Northern California

#### ■ INCOME: \$12,669.38

**Individuals: \$4,550.00** \$20 최준성&명환 / \$40 김신자, 이주익&오윤경 / \$50 나정화, 이우성, 정찬미&석권, 무명 / \$100 Young & Ye Kim, Jonathan & Joung Ok Han, Klepeis Family, Junghae & Steven Yoo, 김성준, 배매희, 무명 / \$150 나대용 / \$200 안소영, 최영훈&재현 / \$300 김정기&남경아, 오영수 / \$500 강태우, 차현상&김은미 / \$1400 이지선&학천

**Churches: \$3,155.00** \$75 산호세새소망교회 / \$100 산호세밸리교회,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한사랑교회 / \$200 산타로사한인장로교회, 이스트베이한빛교회, 프레즈노참빛교회, 좋은땅침례교회 / \$280 임마누엘장로교회(전연실목장) / \$300 심포니교회, 크로스포인트교회 / \$500 임마누엘장로교회 / \$600 몬트레이침례교회

**Businesses: \$264.38** \$7.64 아마존스마일 / \$56.74 IBM Employee services center / \$100 Subway Sandwiches, 부르스리마용실

**Designated income: \$4,700.00** <사랑의교실 \$1,600: \$100 김정기&남경아 / \$1500 베델연합감리교회> <청년밀알 \$300: \$100 마이클가정 / \$200 엠마오선교원> <화요예배 \$300: \$100 김정기&남경아 / \$200 전승화> <지정후원금 \$2,500: \$1000 김정기&남경아 / \$1500 강태우>

#### ■ EXPENSE: \$17,321.67

**Mission Expenses: \$10,961.99** 사례비(5인) \$6,738.17 / 선교활동비 \$237.12 / 미주밀알지원 \$499.30 / 은급비 \$300 / 경조비 \$100 / 화요예배 \$301.51 / 사랑의교실 \$80.10 / 출장비(서부지단회의) \$1,205.79 / 장애인가정후원 \$1,500

**Admin. & Management: \$3,629.03** 사무실비품 \$74.86 / 전화&인터넷 \$221.77 / IRS Tax \$477.57 / 수수료 \$99 / 사무실임대료 \$1,200 / 책임보험료 \$1,555.83

**Auto Expenses: \$753.93** 유류비 \$88.57 / 차량수리 \$24.99 / 보험료 \$640.37

**Media Mission: \$1,976.72** 밀알&세계 발송비 \$271.46 / 밀알&세계 인쇄비 \$1,089.61 / 우편발송비 \$615.65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78,374.97**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73,722.68**

## Seattle

■ INCOME: \$8,070.00

**Individuals: \$3,060.00** \$20 윤유순X2, 정은옥 / \$30 남숙희X2, 황영자 / \$50 이영자, 박진경X2, 장옥현X2 / \$60 류준명 / \$100 경자훈, 송인숙, 허성숙, 김상수, 김준, 옥현희, 함월선, 윤태준&이정주X2 / \$200 이종열X2 / \$300 이영자 / \$400 장영준&장아련 / \$600 이명운

**Churches: \$3,150.00** \$100 밴쿠버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예수안교회, 순복음큰빛교회, 벨링햄화평교회, 에버딘연합장로교회, 퓨알럽한인장로교회, 타코마삼일교회X2 / \$150 페더럴웨이벤델침례교회 / \$200 시애틀브리지교회 / \$4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 \$500 시애틀임마누엘교회 / \$1,000 베이커형제교회

**Businesses: \$900.00** \$100 임학수CPA, Fair Ridge Law FirmX2, Northpoint University / \$200 Tru dental of Northgate / \$300 무명

**Designated income: \$960.00** SMA & TMA

■ EXPENSE: \$10,580.03

**Mission Expense \$3,231.38** / Admin & Management \$665.84 / Media Mission \$2,016.54 / Class AGAPE \$206.88 / Dues to LA \$249.00 / Tuesday Meeting \$806.19 / Auto Expenses \$362.10 / Tax \$414.12 / Special Event \$1,970.08 / Insurances \$79.28 / Pastoral Visit \$278.62 / Retirement Plan \$3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85,401.36**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82,891.33**

## Vancouver

■ INCOME: \$6,430.00

**Individuals: \$1,74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신희원 / \$30 원소현, 테레사최 / \$50 김형운, 이혜영, 이윤도, 오정석, 강시영, 진훈 / \$100 황신혜, 하준석, 곽혜경, 김계은, 이상현&유혜정 / \$200 서동구, 김탁숙 / \$400 윤영로

**Churches & Businesses: \$3,630.00** \$100 헤브론교회주향기목장(11월) / \$200 Oronia Ltd. / \$1,500 밴쿠버중앙장로교회(하반기) / \$1,830 밴쿠버순복음교회(하반기)

**Specials & Designated income: \$1,060.00** <10월에배헌금 \$100: \$10 이유진 / \$20 이해, 이상현, 에드윈 / \$30 한세영@> <밀알러멘티 \$460: \$100 광도경@ / \$360 참가회비> <designated \$500: Coram Deo(11월)>

■ EXPENSE: \$9,012.37

**Payrolls: \$3,457.69** 사례비(2인)

**Mission Expense: \$81.30** 활동비

**행사비: \$45.96** 영락교회 방문 밀알사역소개

**Class AGAPE: \$485.32** <Happy Together Class \$72.79: 통신비 \$61.60 / 소모품 \$11.19> <밀알러멘티 \$412.53: 장소렌탈 \$40 / 식재료 \$238.24 / 부가재료 및 기타 \$174.29>

**Admin & Management: \$2,149.94** <General 649.94: 통신비 \$67.20 / 프린터카트리지 \$570.40 / 우편물 \$12.34 / 은행수수료 \$10> <렌트비 \$1,500: SPC(하반기11차)>

**Taxes: \$499.97** payroll(11월분)

**Auto Expenses: \$739.69** 운행비 \$310.15 / 뱅할부금(11월) \$429.54

**발전업무: \$1,052.50** 굿즈프로젝트 투게더-KK펀드레이징구입비

**Designated expense: \$500.00** 코람데오(11월)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3,372.21**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789.84**

## Texas

■ INCOME: \$ 3,882.52

**INDIVIDUALS: \$ 955.00** \$20 Heather Cho / \$25 방진원 / \$30 한성원 / \$50 김태남&이선화, 무명, 김희경, 정선혜 / \$80 정호영 / \$100 오영숙, Daniel Yoon / \$400 채경수&임현정

**CHURCHES & BUSINESSES: \$1,117.52** \$17.52 Amazon Smile &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트워스제일장로교회 / \$200 JDX Mission, 라이트하우스교회, 제자침례교회, 나눔교회, Benevity

**DESIGNATED income: \$1,610.00** <사랑의교실: \$50 임현정 / \$100 무명 / \$200 이승현 / \$460 Texas Maintenance Development> <사랑나눔: \$1,000 수정교회>

**FOOD SUPPORT: Escape Bakery, 예일호 가정, 한우리교회 지역사회 섬김부**

■ EXPENSE: \$3,559.82

**MISSION EXPENSE: \$1,587.94** ministry support \$1,000 / 밀알&세계 인쇄비 \$315 / 체크발송 \$8.08 / 밀알사랑나눔 물품 \$47.96 / 상회비 \$216.90

**CLASS AGAPE: \$663.91** 활동운영비 \$500 / 점심식사 \$142.74 / 재료비 \$ 21.17

**ADMIN & MANEGEMENT: \$1,307.97** 장소사용료 \$200 / 은행, 카드 등 수수료 등 \$74.93 / IRS tax payment \$191.25 / CPA 수수료 \$300 / 통신비 \$168.52 / 보험 \$205.48 / dropbox 연회비 \$127.79 / NTTA toll \$4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1,658.95**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1,981.65**



#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굴,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 밀알선교단 후원을 위한 온라인 모금 결제 시스템 안내

저희 밀알선교단에서는 후원자분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밀알을 후원하시도록 하기 위해 '남가주밀알 홈페이지(<http://milalmission.com>)'에 Paypal 계좌와 크레딧카드 결제를 이용한 후원 모금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전체 미주밀알 후원을 위해 남가주밀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후원 모금 시스템으로, 남가주밀알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결제된 후원금은 그 지역에 위치한 밀알선교단을 후원하게 됩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 실행단원( ) 후원단원( ) 월 \$5( ) \$10( ) \$20( ) \$30( ) \$50( ) \$100( ) 그외 \$( )

서명: \_\_\_\_\_ 날짜: \_\_\_\_\_

##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lal@worldmilal.org

##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 ■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 www.milal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밝은예배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7: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9:00 ~ 오후 12:00	나침반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1:30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동부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2:3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00 ~ 오후 12:3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랜스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1:00	토랜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1: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 www.milalca.com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아동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4:00	산호세새소망교회 /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청년사랑의교실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 ■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 www.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wheat@yahoo.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웨더럴웨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웨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	37505 28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 ■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 www.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밴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 ■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 www.txmilal.org | www.facebook.com/texasmilal

1313 Valwood Pkwy #20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1313 Valwood Pkwy #200, Carrollton, Tx75006
목요모임(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오후 8: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미연 미주총단** 워싱턴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세미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미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